

2025년도 제1차
민생경제점검회의 안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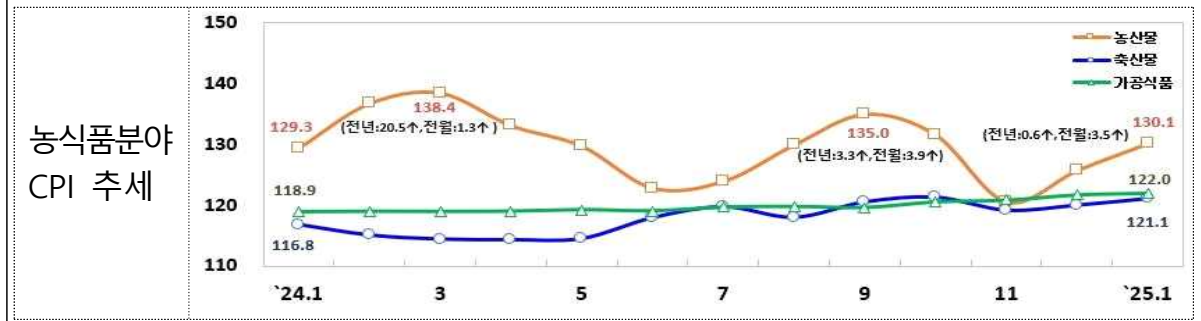
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

2025. 2. 6.

농림축산식품부

I. 농식품 가격 동향 및 전망

◇ 농식품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배추·무·배와 일부 식품원료 강세



- (과일) 사과·포도·단감은 가격 안정세이며 공급량도 충분, 배는 폭염 피해로 저장량 감소, 감귤은 출하 끝물로 공급이 감소하며 가격 강세

* 소매가격(1.하): 사과 26,968원/10개(전년비 0.5%↓), 포도(샤인) 15,542원/2kg(38.6%↓), 단감 14,042원/10개(27.2%↓), 배 47,281원/10개(40.5%↑), 감귤 6,064원/10개(20.3%↑)

- (채소) 배추·무 등 노지채소는 생산량 감소로 봄작형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, 상추·깻잎·토마토·딸기 등 시설채소(과채류)는 보합 및 약세

* 소매가격(1.하): 배추 4,833원/포기(전년비 52.7%↑), 무 3,046원/개(97.8%↑), 딸기 2,282/100g(0.5%↑), 깻잎 3,138원/100g(0.7%↑), 토마토 5,537원/kg(32.1%↓), 상추 1,098원/100g(17.2%↓)

- (축산)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, 계란·돼지고기도 공급량은 충분하나 기저효과 등으로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

* 계란 2월 생산량은 5,244만개/알(전년비 8.4%↑), 소매가격(1.하순): 6,387원(전년비 8.1%↑)

* 돼지고기: 가격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(1.하순 소매가격 전년비 90%↑), ASF발생으로 살처분(1.28. 현재 8,175마리) 중이나 전체 사육두수(1,200만마리)의 0.07% 수준

- (식품·외식)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%대로 안정적인 상황이나, 원자재·인건비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 우려

* '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: 가공식품 2.7%↑, 외식 2.9%↑

- 특히 가뭄·폭염 등 이상 기후로 커피·코코아 가격은 상승세 지속

* ('25.1.30. 기준, 선물가격) : 코코아(11,207\$/톤, 전년비 151.5%↑), 아라비카커피(외식용) (8,232\$/톤, 전년비 55.6%↑), 로부스타커피(가공용) (5,747\$/톤, 전년비 32.8%↑)

Ⅱ. 대응 방안

<농축산물>

1 배추·무

- 공급량 확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할인지원 병행
 -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6,800톤(2.1.기준)과 김치업체의 여유 재고 등 민간 보관물량 3,800톤을 시장 공급
 - 1월부터 4월까지 배추 1만톤, 무 2만톤 할당관세 추진 중이며, 정부주도로 수입 배추·무 각각 5천톤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 추진
 - 배추·무는 할인지원을 당분간 지속하고, 무는 정부 비축물량(500톤)을 대형마트 등 소비지 시장에 직공급 추진
- 수급불안 조기 차단을 위해 봄작형 확대 및 대체 채소류 소비 유도
 - '25.1월말 현재 봄배추·봄무 재배의향이 전년대비 각각 4.7%, 6.3%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, 추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
 - 특히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(전년 대비 배추 30%↑, 무 20%↑)하고, 확대물량은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정부 구매비축 추진(사전계약)
 - * 봄배추 비축물량 확대('24 1만톤 → '25 1.5(민간 저장지원 3천톤 포함))
 - * 봄 배추·무 재배면적 확대 협의(1월 2회, 농협 등), 배추정식 현장점검(2.6, 장관)
 - 배추, 무를 대체하여 가격이 저렴한 열무, 봄동배추 등 시설채소 소비 비중을 늘리는 합리적 소비 홍보(농협, 소비자단체 협조)
 - * 도매가격(1.하) : 봄동 36,178원/15kg(전년비 14%↓), 열무 10,094원/4kg(전년비 40%↓)

2 배

- 분산 공급을 통한 공급단절 방지 및 대체과일 소비 유도 추진
 - 계약재배 및 농협 보유물량을 활용하여 분산 출하(2~7월, 23천톤)
 - * 배 유통가능물량(21일 기준) : (평년) 34천톤 ('24) 28 ('25) 23(전년비 18.3%↓, 평년비 34.1%↓)
 - 공급에 여유가 있는 사과, 포도, 만감류 등 국산과일 공급 확대,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(1.24~6.30, 300천톤*) 집중 공급으로 수요대체 유도

3

동절기 생육관리 강화

- (시설) 농진청·지자체·농협 등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 개최를 통해 사전대비 상황 점검 및 대응 기술 지도 강화
 - * 겨울철 주 출하지 농협 대상 한파 이후 작황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 등 추진
- (사과·배)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, 꽃눈 관리, 냉해 예방 등 사전조치 집중 추진(2.12 아산시, 현장 생육관리협의체 개최)
 - * 배의 꽃눈 분화율은 평년 수준으로 양호, 다소 저조한 사과를 중심으로 겨울철 가지치기 현장지도 등 생육관리 추진
- (AI 대응)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(닭·오리)는 전체 사육 규모의 1.8% 수준으로 수급 영향은 미미한 수준
 - 2월 한 달간 「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」 추진
 - * 위험 사군 특별점검(2.5~21) 및 산란계 농장 일제 검사(2.5~18), 집중 소독(2.3~16) 등
 - 계란 수급·가격 등 고려,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 추진(2월 중·하순)

<식품·외식>

1

세제 혜택 및 경영자금 지원

- (업체지원) ①주요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,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, ③식품소재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
 - ① 코코아생두, 커피농축액, 설탕, 오렌지농축액 등 13개(향후 기재부에 확대 요청)
 - ② 커피·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(10%)면세('22.6.28 ~ '25.12.31)
 - ③ 밀, 코코아, 커피, 유제품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(이차보전)
- (배달앱)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포탈(웹)을 구축
 - * 포탈웹구축(2~3월) 및 운영(4월~), 홍보영상제작(2~3월), TV, 라디오, 온라인, 신문사,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홍보 추진(4월~), 외식업체 공공배달앱 입점 독려(2월~)

2

업체 소통 강화

- 식품기업(CJ, 오뚜기 등 15여 개) 대상 간담회를 개최(장관 주재, 2월 11일),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 협조 추가 당부
 - 주요 식품기업은 자체적으로 소스류, 유제품 등의 할인행사를 추진 중,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 및 품목 확대 당부
 - * 롯데웰푸드, 대상, CJ제일제당, 오뚜기, 남양유업, 농심, 빙그레 등 가격인상 8개업체